

Studio DAC:

아트 클래스 - 토크

경계: 아카이브

익명의 아카이버 모임

강현주

일시

2026. 5. 29(금) 오후 7:30-9:00

장소

Studio DAC

공연을 준비하며 만난 식물학 연구원, 사전편찬자, 도서관 사서들은 공적인 아카이브 뒤에 존재하는 익명의 아카이버*들이었습니다. 이들은 자료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존재인 '무의미한 데이터', '사어(死語)', '폐기 도서'에 대해 고민합니다. 그 고민은 사회의 윤리와 기록하는 사람의 태도와 연결되며, 연극이라는 편집된 아카이브를 만드는 창작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. 창작자, 그리고 또 다른 익명의 아카이버인 우리는 어떤 기록자가 될 수 있을까요?

1. 아카이브: 가치 있는 자료의 기록
2. 작품 리서치 과정에서 만난 아카이버들: <잘못된 성장의 사례> 속 연구원, <배를 엮다> 속 사전편찬자, <사사로운 사서> 속 도서관 사서
3. 탈락한 존재들: <잘못된 성장의 사례> 속 무의미한 실험 데이터, <배를 엮다> 속 사어(死語), <사사로운 사서> 속 폐기도서
4. 공연이라는 편집된 아카이브: 리서치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이 창작자의 창작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편집되는지.
5. 아카이빙의 맹점 '사람':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.

<잘못된 성장의 사례> 속 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지만, 과학에서의 가설은 '잠정적'인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. <배를 엮다> 속 사전편찬자들은 어떤 단어를 등재할 것인지 동시에 어떤 단어를 탈락시킬지 논의합니다. 예를 들면, 잠깐 살다 사라질 단어 '얼짱', 차별어 '니그로'를 실을 것인지, '미혼모'는 있지만 '미혼부'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, 한번 탈락하면 다시 등재되기 어려운 사어 선정 등을요. <사사로운 사서> 속 사서들은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편향된 수서(도서관 장서 선별 업무)를 하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점검하며 어떤 책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인지 고민합니다.

두산아트센터
교육 프로그램

2026
3.-6.

두산인문극장
두산아트스쿨: 미술
Studio DAC: 아트 클래스

"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주제별 담당 사서들의 검증을 통해 구매된 책이었고, 도서관에 없는 책은 공동체의 관심에 부합하는 책이 아니었다."

Studio DAC POST

『도서관은 살아 있다』 (도서관여행자 지음, 마티, 2022) 중

리서치 과정에서 만난 아카이버들은 모두 탈락한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, 그 고민의 과정에서 사회 윤리와 기록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. 이것은 또 다른 아카이빙 주체인 창작자에게도, 그리고 많은 익명의 아카이버에게도 유효한 질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

*기록학에서 기록물 관리자의 공식 용어는 '아키비스트'이지만, 일상적인 기록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'아카이버'를 사용함.

강현주(극작가·연출가)

DAC Artist,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
드라마 연극 작업을 하고 있다.

공연

작·연출 <사사로운 사서>

<잘못된 성장의 사례>

각색·연출 <배를 엮다>

구성·연출 <걷는 객석> <시장극장>

연출 <99%천재일기>

<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>

교육 뉴스레터

Studio DAC POST



(지난 뉴스레터 보기,
무료 구독하기)